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국가공공체가 순탄한 진행을 못할 때, 그 탓을 공무원에 돌려 그들을 질타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유행이 아닌가 싶다.

교조 해직교사를 복직시킬 때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과 그 성실성,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에 놀랐다.

영혼 없는 공무원 누가 만드나

다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 집단지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록 잠깐이었지만 정부에 들어가 일하면서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100년 전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맹목성과 위험성을 간파했다는 그 통찰력이 한국에서 새삼스럽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했다고 한다. 바로 그 부처의 장관조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의 정신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의 정체가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널기 않고는 권력이 할 탓이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키는 쪽이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 영혼을 가지고 살려는 자주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혼은 저절로 주어지거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설

구조조정 평가 ‘낙제점’ 받은 전남대 현실

전남대가 국립대 구조조정 연차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국립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특성화 전략, 성과지표, 재정 운용 효율화 등 지표별 평가 결과, 전남대가 6개 대학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좌우로 정권이 이동할 때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더욱 양산될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왜 통합을 했는지 의문이다. 통폐합의 목표는 유사 중복학과 통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반발 등이 따르지 않겠지만 통폐합 없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환자 역외유출 ‘도미노’ 방지할 전가

광주·전남 의료계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 절실하다.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안고 찾아오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병원을 찾는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상황에서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유치할 수 없다.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NGO 칼럼

오성민



현재 고유가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다. 치솟는 고유가 때문에 차량 10부제에서 5부제로 바뀌고 관공서에서는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백km를 떨어져 있는 폐기물업체로까지 수주가 이어져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엄청난 유류를 길에다 쏟아 부어 버리고, 업체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요하거나 현장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재활용폐기물까지도 가져감으로써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원숭이 새끼의 ‘塞翁之馬’

(사옹지마)



새끼들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귀엽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닮은 원숭이는 귀여움이 더욱 특별하다.

신 무리성이 강한 일본원숭이 집단으로의 재진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인공 포육한 원숭이들은 대개 조건용으로 키우는 게 원숭이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 서로 부담이 덜 가는 일이다.

폐기물 분리 발주 왜 문제인가

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대규모 신도시, 뉴타운, 행정도시 건설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수요를 감안한다면 건설폐기물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폐기물 선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장에 대해 광주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충청지역 업체가, 방리동 사업은 울산시의 폐기물업체가 맡고 있다.

유통구조 왜곡 ‘쌀 카드깡’ 강력 단속을

쌀은 단순한 곡식 정도가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한 민족문화의 하나이며 농업의 상징이다. 더구나 쌀은 1년간 농사를 지어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곡물이다.

공존이다. 이렇게 조직적인 거래가 중소도시 위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니 안타깝고 화가 난다.

아르바이트생에 성희롱·언어 폭력 심각

고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맥주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얼한데 그만뒀다. 성희롱 때문이었다. 주인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너 살 좀 빼”, “가슴 좀 키워” 등 성희롱을 거리낌 없이 했다.

압박에다가 주인이라는 특수성, 당장 돈이 궁한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약점 등으로 여성들은 성희롱을 수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렇지만 상당수 남성들은 이런 말들을 죄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해대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es text: '10월의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구가 며칠 전 신문에 보도돼 눈길을 끈 적이 있다. 그때가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범죄 분석 통계 자료' 내용이다. 이 통계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10월의 범죄 발생률은 5월에 비해 단지 2%가량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토요일 통계와 거짓말. 10월의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구가 며칠 전 신문에 보도돼 눈길을 끈 적이 있다.